

풍자·코미디·액션 ... 후련하게 웃었다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 종영

사회악을 꼬집으면서도 스트레스받지 않게 웃겨주기까지 하니 덕분에 '불금'(불타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 즐거웠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 마지막회는 18.6%~22.0%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다. 순간 최고는 26.73%까지 치솟기도 했다.

KBS 2TV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22.2%~25.2%, MBC TV 토요극 '슬플 때 사랑한다'는 6.6%~9.0%, 7.9%~8.6%, tvN 주말극 '자백'은 3.8%(이하 유료가구), JTBC 금토극 '아름다운 세상'은 3.267%였다.

◇'버닝썬'까지 풍자·사원한 코미디 '열혈사제' 키워드는 사회 풍자, 코미디, 그리고 액션이다.

사회 풍자극은 그동안에도 많았지만 '열혈사제' 속 풍자는 코믹을 가미해 보기 부담스럽지 않다.

가상 도시인 구담을 배경으로 사회 고위층과 수사기관이 유착된 것은 현실적이지만 그것을 잡고 벌하는 주체는 사제 김해일(김남길 분)이라는 것은 판타지다. 부정의를 목격하고 응징하기 위해 '분노할 건 분노해야죠'라며 육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사제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는 통쾌함을 느꼈다.

특히 김해일이 클럽 카르텔과 경찰 유착, 마약 유통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등장한 클럽 '라이징문'은 최근 연예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버닝썬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시의성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김해일과 검사 박경선(이하니), 형사 구대영(김성균)과 서승아(김세룡) 등 면면에 예사롭지 않은 개성 강한 인물들의 이색 공조와 강렬한 카운터펀치는 천만 영화 '극한직업'을 떠올리게 하며 인기를 끌었다.

웬만한 영화 못지않은 액션 장면들 때면 화제가 됐다.

김해일과 황철범(고준) 간 결투는 물론 여형사 서승아의 시원시원한 액션도 볼거리로

"분노할 땐 분노해야죠"

사회정의 코믹하게 전달

영화 못지않은 액션 장면 화제

김남길·이하니 연기도 명품

시청률 최고 26.73% 치솟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남길 등의 부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중도하차 없이 극을 무사하게 마쳤다.

◇영리한 김남길·매력 발산 이하니 김남길은 이번에도 영리한 연기를 보여줬다. 그는 초반부터 몰입도, 캐릭터 분석력, 극 장악력 등 전방위에서 내공을 발휘했다.

초반에는 시시각각 분노하는 김해일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시청자 눈을 붙들었고, 중반부터는 여러 사건·사고와 공권력의 정경유착 등 현 사회 문제점인 악의 카르텔에 진심으로 분노하면서 시청자에게 대리만족을 안겼다.

특수요원이었던 과거를 등지고 성직자 길을 걷기로 한 김해일이지만, 사제복을 입고도 빠른 두뇌 회전과 상황 판단력,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을 보여주며 그동안 미디어가 다룬 사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극한직업'으로 전성기를 연 이하니는 '열혈사제'로 그 열기를 이어갔다. 더 본격적인 코미디 연기를 보여준 덕분이다. 미스코리아 출신답게 환한 체력과 화려한 얼굴 뒤에 숨은 코믹 DNA를 이번에 제대로 과시하면서 극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김남길과 김성균의 코믹 호흡 역시 돋보였으며, 조연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JTBC '미스터'에서 섹시한 매력으로 치정극에 자신만의 색을 입힌 고준은 이번에는 구수한 사투리와 능청스러움을 장착해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악의 고리 강석태 역 김형무, 정동자 역 정영주는 이번에도 신스틸러로 활약했으며, 알고 보니 '타짜'였던 수녀 김민경 역 백지원과 진짜 외국인 인가 싶었던 송사 역 안창환도 제대로 눈도장을



짜였다. ◇SBS 금토극 '녹두꽃'으로 굳히기 전략

SBS TV는 그동안 금요일 밤 '정글의 법칙' 등 예능으로 경쟁하다 '열혈사제'를 기점으로 금토극을 도입했다. MBC TV '나 혼자 산다' 등이 금요일 블록에서 화제성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첫 작품인 '열혈사제'부터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대박'을 치자 SBS는 후속작으로도 조정성, 윤시윤, 한예리 주연의 대규모 사극 '녹두꽃'을 편

성하면서 '굳히기'에 나섰다.

SBS 금토극은 이렇듯 금요일 밤은 물론 토요일 밤까지도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예능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최적의 전략이 됐다.

tvN이 최근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을 끝으로 '불금시리즈'를 잠시 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열혈사제' 후속작 '녹두꽃'은 오는 26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국악방송 TV 채널 명칭 공모

28일까지 응모 ... 11월 개국

국악방송이 오는 11월 TV 채널 개국을 앞두고 채널 명칭 공모전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를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통문화예술 전문TV 채널 명칭 공모전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gugakfm.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 명칭을 제안하면 된다. 국문, 영문, 채널 약칭을 제안하고 채널명 선정 배경, 의미 등을 적어야 한다. 참가자격은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작 출품 수 제한은 없다.

적합성·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선정작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팀·50만원), 우수상(2팀·30만원), 장려상(3팀·20만원), 입상(6팀·5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5월14일에 한다.

국악방송(광주 99.3MHz,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해남 94.7MHz, 남원 95.9MHz)은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TV 채널 개국을 앞두고 있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은 국악, 한복, 한식, 전통 공예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화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다. 문의 02-300-997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BS 새 예능 '당나귀 귀' MC

김용건·전현무·김숙·유노윤호



유노윤호

KBS는 19일 2TV 새 예능 '당나귀 귀는 당나귀 귀' 진행자로 김용건, 전현무, 김숙, 유노윤호 등 4명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당나귀 귀는 당나귀 귀'는 셀러브리티 보스와 직원들의 일터를 관찰하는 예능이다.

지난 2월 설 파업으로 호응을 얻어 정규 편성됐으며 당시 프로그램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연복 셰프 등이 직장 상사로 출연했다. 28일 오후 5시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양을 되찾다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모모 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모 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24 45 KBC저녁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뽀뽀 메카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스페셜 신여목동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07:00 레이디버그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달걀국과 썩 볶음밥)
07: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3:40 다큐 시선
08:00 당동생 유치원1~2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험 구조대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9:15 뽀로로 뽀로로	16:15 짝과 팡
09:30 원더볼츠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당동생 유치원1~2(재)
10:30 한국기행(재)	17:15 마사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그룹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형국이 비운이다. 48년생 근본적인 것에 해답이 있다. 60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72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막힘없이 소통되어야 지장을 받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5, 94	午	42년생 줄기찬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54년생 서두름속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66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 78년생 아차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90년생 기발한 발상이 돋보일 수이니 창의성을 도모해보자. 행운의 숫자 : 98, 69
丑	37년생 고려할 수 있으니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49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61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73년생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추진하라. 85년생 결기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행운의 숫자 : 19, 27	未	43년생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오직 통일 된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67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79년생 결실을 거두게 된다. 91년생 복합적인 효과를 보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04, 24
寅	38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 하리라. 50년생 유사함이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다. 62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86년생 꿈도 꾸지 않은 의외의 황재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1, 62	申	44년생 조금씩 변하고 있는 양상이니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56년생 낙담하게 준비해 뒤라. 68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보자. 92년생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겠다. 행운의 숫자 : 31, 76
卯	39년생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1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63년생 생김으로 이어지겠다. 75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우순은 풀이 되리라. 87년생 나올 것은 한정 되어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행운의 숫자 : 21, 56	酉	45년생 힘든 노고의 덕택으로 드디어 안정 궤도에 진입 하리라. 57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69년생 소망 했던 바를 이루리라. 81년생 정성을 들이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93년생 애매하다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68, 33
辰	40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판국이다. 52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겠다. 64년생 바람직한 일이 생길 것이다. 76년생 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가게 된다. 88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0, 19	戌	34년생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46년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58년생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70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용해야 하는 단계로. 82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행운의 숫자 : 49, 39
巳	41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 아졌다. 53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65년생 다른 방법을 택하자. 77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확연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89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6, 54	亥	35년생 거시적 관점에서 관계를 갖자. 47년생 도둑지기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59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성사 될 경우이니라. 71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83년생 기준과 체계가 서야 충격 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